

화순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품관원화순사무소·농협 관계자·원예농산물 생산조직 등 2023년~2027년(5개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완료

화순군이 지난 22일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화순사무소, 통합마케팅조직, 농협 관계자, 원예농산물 생산조직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군은 원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7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에는 원예산업발전 실무협의회의 관계자 회의를, 10월에는 원예산업발전 협의회(거버넌스) 회의와 용역 중간 보고를 통해 전략·육성품목안을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 화순군 2023~2027년 원예산업발전계획으로 제출했다. 전략품목으로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

기, 작약, 육성품목으로는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버섯류, 깨(깨개, 들깨), 풋고추가 선정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다시 한 번 화순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 통합마케팅조직 및 농협, 생산조직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순군은 "매년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한 화순군 원예산업발전계획은 지속적인 원예산업발전 협의회(거버넌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여러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된다

국지도 60호선 5.59km 구간 4차로로 확장...2023년 실시설계 추진 확정

국지도 60호선 담양 고서~창평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된다. 담양군은 고서면 동운리부터 창평면 오강리까지의 국지도 60호선 5.59km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고서~창평간 도로확장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창평나들목을 통과해 창평 슬로시티 방문객, 동원산업물류단지 화물차량, 대덕매산 새콤도시(이스트라움) 개발 등 교통

량이 급증한 국지도 60호선의 확장은 담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고도 예산 확보를 못해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다. 지난 9월 이병노 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현안사업 대응을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내년도 예산확보에 성공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

구례군은 지난 16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20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공위원장인 김순호 군수, 임재신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50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올해 민·관 협력 활동성과를 함께 나누며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는 활동 영상 상영, 사업 추진 및 성과 보고, 읍면 협의체 우수사례 공유, 활성화 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재신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올해 2년째 운영 중인 희망나눔가게 사업과 더불어 여

름 보양식 지원 사업, 1인 취약계층 안부 살피기 위한 안병지킴이 사업, 여성행복꾸러미 지원 등 13개 사업의 성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읍·면 우수활동 공유시간에는 토지면(이무근 민간위원장) '어르신 고추장 만들기 체험활동'과 산동면(유영만 민간위원장) '나눔 배달의 가게 운영'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읍·면 협의체 활성화와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순호 군수는 "민·관 협력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힘과 지혜를 모아 군민 행복 도시 구례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외식 아카데미' 수료식 및 시연회 개최

대한민국 식품 명인·약선 요리 전문가·호텔 셰프 등 6명 강사진 참여



곡성군이 지난 22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곡성 외식 아카데미' 수료식과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곡성 외식 아카데미는 지역 음식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곡성군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약선 요리

전문가, 호텔 셰프 등 음식 전문가 6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아카데미 교육은 한식과 어린이 먹거리 분야로 구성되며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강사진들은 수강생들에게 요리의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등을 강의했다. 또한 유명 맛집의 대표 메뉴 현장 컨설팅, 서비스 개선, 고객 관리, 음식점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도 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15개 업체에 수료증을 수여하며 멜론, 토란, 흑돼지 등 곡성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들을 직접 시연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식분야에서는 흑돼지갈비찜, 토란육개장, 흑돼지두부볶음이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 먹거리 분야에서는 흑돼지를 활용한 깨비 수제버거와 깨비 수제떡갈비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곡성 음식산업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음식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나주시, '명품 나주배 대전환' 비전 선포

2023년 글로벌 브랜드화 원년 도약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미래 100년 과수산업을 선도할 민선 8기 '고품질 명품 나주배 생산·유통 발전 대전환' 비전을 선포했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명품 나주배 생산·유통 발전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3년 나주배 글로벌 브랜드화 원년'을 목표로 5개 비전을 선포하는 한편 고품질 나주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조직과의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비전 선포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만 시의회의장, 김호진·이재태·최명수 도의원과 시의원, 나주배 생산·유통조직, 수출업체 대표·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나주시장 인증 나주배 품질보증제 도입', '생산·유통(GA) 무처리 배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고품질 우리품종 배 생산단지 확대', '수출 전문단지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나주배 소비·유통 활성화 대책 추진'을 미래 100년 나주배 생산·유통 발전 대전환 비전으로 선포했다. 비전 실현 과제로는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 성장축진제 무처리 배 등 나주시장 인증'과 오는 2026년까지 '성장축진제 무처리 배 계 약 출하면적 900ha확대', '신화·창조·슈퍼골드·설원 등 우리품종 배 재배면적 560ha확대' 등을 수립했다. 또 해외 전문 바이어 확보, 해외국가 우호 협력을 통한 '수출량 1만톤 달성', '대도시권 홍보활동 강화', '나주배 지리적 표시제 관리강화', '공공기관 대상 나주배 사주기 운동 전개' 등에 힘을 기울인다.

나주=송준표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